



[바이오] 종근당 인도네시아에 항암제공장 준공 L2



Life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목마른 사회 곳곳에 나눔 한방울 L4



metro경제

fftk 2019

Future Food-Tech Korea

ACRES international
Speakers · Contents · Platform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Open Innovation shaping the Future of Food

2019년 7월 11일(목) |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층)

콩으로 만든 고기, 당 낮춘 쌀... 혁신 만난 식품의 진화

“You are what you eat(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건강수명’이 중요해지며 음식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는 추세다. 사람들은 입 안에서 맛있을 뿐 아니라, 몸도 건강해지는 음식을 찾게 된 것이다. 먹거리 부족은 또 다른 이슈다. 지구에 사람과 가축이 살 수 있는 땅과 마실 물이 점차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대체 식품들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식품은 이제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가치’로 떠올랐다. 미래 혁신 기술을 만난 식품의 진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도 높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푸드테크’는 식품, 유통업계의 새로운 화두가 됐다. 콩이나 버섯 등의 식물성 원료로 소고기와 흡사한 맛과 식감을 재현한 ‘대체육’이 빠르게 성장하고 당을 줄이거나 대체감미료를 사용한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채식 기반 식품 협회(PBFA)에 따르면 식물성 대체육 시장은 내년 30억달러(약 3조5565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2년새 5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기존에는 채식주의자들의 전용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가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동물 보호 등의 윤리적인 문제로 가짜 고기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당뇨 환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혈당 조

‘푸드테크’ 식품·유통업계 화두로 건강해지는 음식·대체 식품 등장도

절을 돕는 제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밀가루 대신 곤약으로 만든 면에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인 알루로스, 스티비아를 사용하고, 혈당을 낮춰주는 물질을 넣은 쌀도 재배된다. 특히, 개별 환자의 질환에 맞춰 맛과 영양을 갖춘 ‘환자 맞춤형’도 각광을 받는 분야다.

식품의 변화는 유통구조도 크게 바꿨다. 1~2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HMR(가정간편식)과 신선식품 새벽배송이 유통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9식품산업 전망’에 따르면 국내 HMR 시장 규모는 올해는 4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HMR 인기에 더불어 온라인 장보기가 보편화되면서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도 급증하고 있다. 마켓컬리를 시작으로 쿠팡과 이마트까지 가세하며 새벽배송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추세다.

국내 푸드테크 시장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이 주도하고 있다. 스낵포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간식을 제공한다. 향이나 맛 등 소비자 취향을 고려하고, 칼로리 구성과 남녀 고객의 취향을 파악해 고객에 맞는 과자를 선택 배송한다. 축산물 오픈마켓 미트박스는 중간 상인을 거

FFTK 2019 프로그램 순서

시간	프로그램	
13:30 ~ 14:00	등록 및 오픈닝	
14:00 ~ 14:10	축사	전혜숙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개막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14:10 ~ 14:40	기조강연	세스 배넌 글로벌 푸드테크 투자전문기업 ‘Fifty Years’ 창업자
세션1. 식품업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미래성장동력 만들다		
14:40~15:40	강연	〈오픈 이노베이션〉 윤효정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플랫폼센터장
		〈미래 식품시장의 지속가능 성장〉 신디 오우 듀폰 뉴트리션&바이오사이언스 규제 및 제품관리 아시아태평양 총괄본부장
세션2 푸드테크가 미래다		
15:40 ~ 16:20	강연	〈지능형 축산 유통 플랫폼〉 김기봉 글로벌네트웍스(미트박스) 대표이사
		〈빅데이터 기반 간식 큐레이션〉 이용희 스낵포 창업자&대표
16:20 ~ 16:50	패널토론	〈좌장〉 윤효정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플랫폼센터장
		〈패널〉 세스 배넌 글로벌 푸드테크 투자전문기업 ‘Fifty Years’ 창업자 신디 오우 듀폰 뉴트리션&바이오사이언스 규제 및 제품관리 아시아태평양 총괄본부장 김기봉 글로벌네트웍스(미트박스) 대표이사 이용희 스낵포 창업자&대표

치지 않고 육류 생산자(육류가공장, 육류 수입업체)와 소비자(식당, 정육점)를 직접 연결시켜 주는 B2B플랫폼이다. 투명한 가격 정책, 양질의 공급

업체 확보라는 장점도 갖춰 축산물 B2B 시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세스 배넌

글로벌 푸드테크 투자처 ‘Fifty Years’ 창업자



세스 배넌(Seth Banno)은 세계 최대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가를 후원하는 시드 펀드인 ‘Fifty Years(피프티 이어스)’ 창립 파트너다.

세스 배넌은 인터넷을 통해 지구를 덮을 수 있는 작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 먹는 고기를 배양하는 회사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산업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신생 기업에 투자해 왔다.

또한 세스 배넌은 기업가 중심 투자집단 임팩테크(impact.tech) 공동창립자이자 디지털 기반 비영리단체 및 정치캠페인 플랫폼 아미커스(Amicus) 설립자 겸 CEO다.

세스 배넌은 Y Combinato를 졸업했으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포브스 30세미만 소셜기업가 30인에 두 번 선정됐다.

그는 식품문제 이슈 등을 해결을 위한 글로벌 투자 트렌드와 식품시장 변화 방향에 대해 강연도 하고 있다. 또 푸드테크는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음식과 기술을 결합시킨 새로운 산업분야라고 주장한다. 즉 푸드테크는 농업과 식품 생산 기술, 유통 혁신 등이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효정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플랫폼센터장



윤효정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플랫폼센터장은 단백질 소재 및 식품 안전 분야 신기술 연구 개발과 제품 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윤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학사 및 석사를 취득한 뒤, 동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미국 미시건대학교 화학과 포스트 닥터,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 식품과학 박사, IEF 레보라토리스 앤드 컨설팅 그룹(Laboratories and Consulting Group) 포스트 닥터 과정을 마쳤다.

그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힐셔브랜즈(Hillshire Brands, ‘Former Sara Lee’) 연구소에 재직하며 제품 개발, 신기술 연구를 진행했다.

2014~2015년에는 미국 ‘캠벨스프Campbell Soup Company’ 연구소의 ‘사이언스 & 테크놀로지(Science & Technology)’ 부서에서 단백질 소재와 식품안전 연구 분야 신기술 연구 개발 및 제품 개발 업무를 수행했다.

2015년 CJ제일제당과 인연을 맺은 그는 육가공 수산식품 센터장, 신선식품 센터장 역임했으며, 현재 식품연구소 플랫폼센터장을 맡고 있다.

신디 오우

글로벌 식품 규제 및 제품관리 전문가



신디 오우(Cyndy Au)는 글로벌 식품 규제 및 제품관리 전문가 겸 아시아태평양 식음료 시장 전문가로 현재 듀폰 뉴트리션&바이오사이언스 규제 및 제품관리 아시아태평양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인그리디언, 폰테라, 다농, 몬렐리 등 글로벌 식음료기업 규제 및 제품관리를 담당한다.

신디 오우는 말레이시아국립대학교(UKM) 식품과학 학사,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NTU) 커뮤니케이션 석사를 취득한 후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 국제식품규격 국제식품법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식품 및 영양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다. 2011년에는 ‘Asian Congress of Nutrition(ACN)’ 싱가포르를 최초로 유치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난양기술대학교 아시아 소비자 연구소(Institute on Asian Consumer Insight)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싱가포르 제조업연맹(SMF) 식음료산업그룹 부의장을 지냈다.

Southeast Asia Public Health Nutrition (SEA-PHN) network 창립회원이기도 하다.

김기봉

글로벌네트웍스(미트박스) 대표이사



김기봉 글로벌네트웍스(미트박스) 대표이사는 경북대 무역학과를 졸업 후 LG그룹, 아워홈 등 국내 대기업에서 글로벌 축산 소싱 전문가로 활약했다. 이후 2010년(주)푸디아 대표이사를 거쳐 2014년(주)글로벌네트웍스 공동창업 및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김 대표이사는 축산업계 정보 투명성이 확보된 축산물 오픈마켓인 미트박스를 런칭했다.

이용희

스낵포 대표



이용희 대표는 스낵포와 전혀 다른 중국어 직접 입력 애플리케이션 ‘팔팔입력법’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하던 중 각종 강연, 사업 소개 자리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과자를 발견했고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고안했다. 스낵포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스낵 종류뿐 아니라 배달, 개별포장 등 서비스도 다양하다.